

서울특별시

대형 온라인 쇼핑몰 식품 원산지 집중 단속

서울특별시는 G마켓과 옥션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과 5개 대표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8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한다고 지난 4월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쌀, 곡식류, 과일, 채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농축산물과 김치, 각종 반찬류, 양념갈비, 떡갈비, 갈비탕 등 가공식품이다.

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또는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광고를 소비자를 기만하고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원산지의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등 강력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업체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출물류비 지원

용인시가 지역 내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

비를 지원한다.

시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0년 한 해 동안 선적된 배, 화훼류, 종자, 인삼, 김치, 전통주, 포도, 버섯, 닭고기 등 수출 집중 육성 품목에 대해 생산농가는 표준물류비의 5%, 수출업체는 10% 이내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4월 25일 밝혔다.

수출실적 20만달러 이상인 수출업체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수출실적 등록과 물류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에서 시에 지원한도액을 통보하며, 수출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수출실적 20만달러 이하인 수출업체나 생산업체는 시에 직접 지원신청을 하면 시가 검토 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이 포함된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 지원액을 확정하게 되며, 일부 품목이나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제출한 생산·수출 계획 및 사업비 신청 등을 조정하게 된다.

한편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현지에서 폐기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회수하는 등 패널티가 적용된다.

강원도

인제 닭바위 공원 새롭게 단장

인제군 닭바위 공원이 역사 유래를 되살리고 스토리를 입혀 새롭게 단장돼 주위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억2,600만여 원을 들여 남



면 신남리 471번지 닭바위 공원 내에 육모정 1동, 문화재 안내판 1개, 역사문화 안내간판 6개 설치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역사와 테마가 있는 도심 속의 공원으로 단장했다.

이번 새 단장은 지난 2006년부터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획일적인 편의시설을 갖 추기보다는 옛부터 전해오는 지역 역사 유래인 닭과 연계해 세워졌다.

또 닭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적 의미들인 세시풍속, 금기, 신앙, 음식문화, 문화작품 등 책자 형태의 안내판을 6개 설치해 옛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재미를 제공했다.

이밖에 암탉이 알을 품는 형상으로 석상을 만드는 등 공원 전체가 닭과 관계된 스토리로 정성스레 꾸며져 눈길을 끌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닭바위 공원의 새단장으로 우리 고장의 소중한 역사와 유래를 지키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가축 인플루엔자 전용 실험실 구축

충남에 올 하반기 닭, 돼지 등 가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용 실험실이 생긴다.

지난 4월 8일 충청남도 가축위생연구소(소장 박영진)에 따르면 최근 국비 10억원을 들여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 가축위생연구소 내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용 실험실을 짓기로 하고 지난 4월 1일 착공에 들어갔다.

8월 말 완공 예정인 이 실험실은 171m² 규모로 공기정화장비인 헤파 필터, 멸균 장비 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연구할 수 있는 각종 실험기기가 들어선다.

실험실은 12월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3) 시설 인증을 받을 예정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인플루엔자, 신종플루 등 질병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 업무를 광우병 실험실에서 담당했지만 이 전용 실험실이 구비되면 교차오염이 방지되고 광우병 검사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한층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기군, ‘토종닭’ 복원운동 전개

연기군이 우리나라 농촌에서 사라진 토종닭 복원운동 전개와 함께 장기적으로 토종닭의 상품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4월 18일 연기군농업기술센터는 재래닭(토종닭)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품종 복원한 토종닭 실용계 7,200마리를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 연구회원 146명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연기군 측은 농가에 사육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상품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존 일부 농가에서 혈통 근거가 불확실한 교잡종을 토종닭으로 키우고 있지만 이번에 보급하는 토종닭은 혈통이 확실하고 품질도 일반닭에 비해 우수하다”며 “앞으로 새로운 특색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

음성군은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 향상을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하기로 했다.

군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사육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조례안은 소, 돼지, 말, 닭, 젓소, 오리, 양, 사슴, 개 등 9종을 사육 제한 대상 가축으로 규정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다음과 같다.

• 절대제한지역

▲축사(부지)와의 직선거리(이하 같음) 300m 이내의 소, 젓소, 말, 사슴, 양 ▲500m 이내의 닭, 오리 ▲1,000m 이내의 돼지, 개

• 5가구 이상 주거시설이 있는 주거 밀집지역

▲주택(부지)과 축사(부지)와의 직선거리(이하 같

음) 300m 이내의 소, 젓소, 말, 사슴, 양 ▲500m 이내의 닭, 오리 ▲1,000m 이내의 돼지, 개

경상남도

포장육 포장용기에 도축장 이름 표시해야

앞으로 소, 돼지, 닭, 오리 등 포장육 포장용기(비닐, 박스)에 도축장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등급을 의무적으로 별도 표시해야 한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6월 29일 개정된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오는 7월 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포장육에는 ‘도축장명’과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한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제품명에 ‘맛’자와 그 맛을 뜻하는 그림 사용이 금지된다.

개정된 표시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육점에서 육류를 고를 때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찍이 도축장 실명제를 시행함에 따라 소, 돼지, 닭, 오리고기 포장육 포장용기에도 도축장명을 의무 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실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해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한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맛’자는 못 쓰게 하는 대신 ‘향’자만을 표시토록 하고 그 맛이나 향을 뜻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3월 12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개정돼 쉽게 변질·부패되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공육 제품에 대해서는 영하 2℃~영상 5

℃ 이하에서 보존·유통하도록 강화(기준 -2~10℃)했으며 이 제도는 도축장 등 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도내 포장육 및 축산물 가공품 생산실적은 포장육의 경우 298개 업체에서 14만 4,000톤으로 조사됐다.

경남도 축산과 강효봉 과장은 “이번 포장육 표시기준과 알가공품 미생물 규격기준 강화는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광주지역 조류인플루엔자에 ‘안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문용운)이 풍암저수지와 재래시장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서구청이 풍암저수지에 방사한 기러기와 거위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3주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양동시장, 말바우시장, 비아시장, 송정시장, 남광주시장 등 재래시장 5곳에서 유통되는 닭, 오리와 15개 식용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일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의심되는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축산 농가에서는 폐사율이 늘어나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증상 외에도 질병에 감염됐을 만한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신고전화 국번없이 1588-9060).

전라남도

광주·전남 닭 사육수수 증가

광주·전남에서 최근 한·육우와 돼지, 닭의 사육은 증가한 반면 젖소는 사료비 상승 등의 여파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8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3월 1일 기준 가축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육우의 경우 광주는 7,000마리로 3개월 전보다 13.0%, 1년 전보다는 30.7% 증가했다. 전남도는 46만 마리로 3개월 전보다 4.7%, 1년 전보다는 11.1% 증가했다.

한우 산지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송아지 입식 증가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정육점형 식당 확산에 따른 수요증가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돼지도 비육돈 가격의 하락과 설명절 소비 증가에 따른 출하마리수 증가로 광주가 9,000마리, 전남이 83만2,000마리로 1년 전보다 각각 34.9%, 4.0% 증가했다.

닭도 계절적 요인과 계란값 안정, 육계시세의 꾸준한 상승, 폐업농가의 신규 입식 등의 영향을 받아 광주가 37만 마리로 3개월 전보다 301.1%, 1년 전보다 198.4% 증가했고, 전남은 1,582만 마리

로 3개월 전보다 13.0%, 1년 전보다 22.2% 증가했다.

반면 젖소는 원유 생산 조절제와 저능력우 도태, 사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광주가 607두, 전남이 3만1,000두로 1년 전보다 각각 13.4%, 5.1% 감소했다.

닭 뉴캐슬병 청정화에 총력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지난 4월 7일 기온이 온화하고 건조한 4월부터 육계 입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닭 뉴캐슬병의 철저한 예방접종과 소독 등 방역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캐슬병(Newcastle disease, ND)은 가축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90% 이상의 닭이 폐사할 수 있다. 특히 어린 닭에서 다리와 목이 마비되고 떠는 신경증상이 나타나거나 산란계에서 뚜렷한 증상 없이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치명적인 급성 가축 전염병이다.

이에 따라 전남축산기술연구소는 올바른 예방접종 권장 프로그램을 시·군 및 축산관련 단체(협회) 등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도계장 및 농장에서 닭 혈액을 채취해 뉴캐슬병 항체검사를 통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육계 및 백세미의 경우에는 3차까지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접종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접종일령이 잘못되어 균일하게 접종되지 않은 경

우 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접종해야 한다.

조상신 전남축산기술연구소장은 “뉴캐슬병은 농가에서 백신접종 주기에 따라 철저하게 백신을 실시하면 퇴치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농가에서 뉴캐슬병의 유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

순창군, 가축재해보험사업에 군비 지원

전북 순창군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사업에 군비를 지원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순창군에 따르면 총 2억5천만원의 사업비 중 6,250만원을 지원,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는 보험사업 대상 가축 사육 농가와 법인으로 재해보험 가입 시 납입하는 보험료 중 개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를 군비로 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 사고로 폐사한 소와 화재로 인한 손해, 설해, 풍수해를 입은 돼지를 비롯 화재, 풍수해 등을 입은 닭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가축재해보험사업의 추진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은 물론 축사시설과 전염병의 조기 발견 등에 대한 안전진단으로 사전 예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